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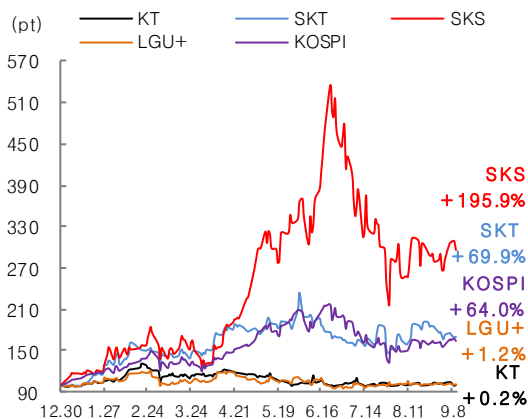
기업	25/12/30	09/04	09/11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92,500	90,900	▲ 37,400	▲ 69.9%	▼ 1,600	▼ 1.7%	3,160	3.5	
SK스퀘어 (402340)	368,000	1,041,000	1,089,000	▲ 721,000	▲ 195.9%	▲ 48,000	▲ 4.6%			
KT (030200)	52,600	54,300	52,700	▲ 100	▲ 0.2%	▼ 1,600	▼ 2.9%	2,700	5.1	
LGU+ (032640)	14,720	14,760	14,890	▲ 170	▲ 1.2%	▲ 130	▲ 0.9%	700	4.7	
KOSPI	4,214.2	6,687.2	6,909.9	▲ 2,695.7	▲ 64.0%	▲ 222.7	▲ 3.3%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6월 급락장 이후로는 지수대비 아웃퍼폼 중입니다.
- 통신 주간 -1.7%, KOSPI +3.3%. YTD 통신 +25.7%, 지수 +64.0%. 이번 주도 통신이 하락했지만, 6/22 지수 고점 시점 대비로는 아웃퍼폼. 6~7월 지수 급락 구간에서 지수 -39%, 통신 -7%. 7월말 이후 반등 구간에서는 지수 +24%, 통신 +7%. 누적 기준 지수 -24%, 통신 -1%
- 자사주 취득 중인 LGU+와 주주환원 수익률 높은 KT는 견조한 상승, SKT는 반도체와 Anthropic의 실적/IPO 등의 소식에 따라 높은 변동성 형성
- 3Q 실적 및 연내 추가로 발표될 AIDC 관련 내용들 외에는 당분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
- 9~10월 자사주 모멘텀에 따른 LGU+, 10~11월 Anthropic IPO 밸류에 연동된 SKT의 반등 및 차익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주가 변수
- KT는 유희자산 유통화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 주주환원 제시 여부가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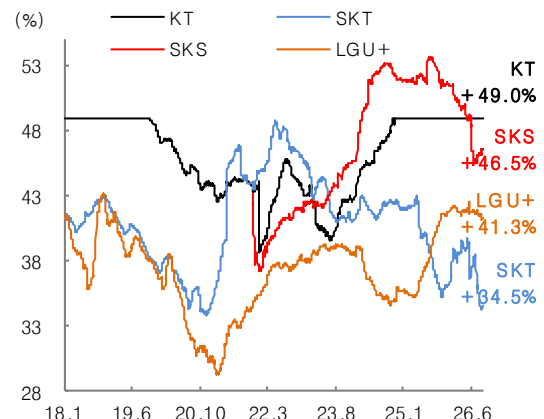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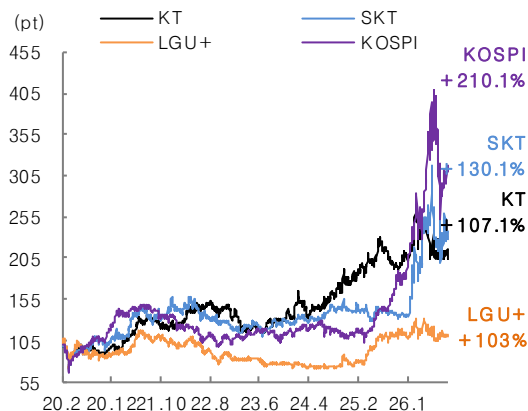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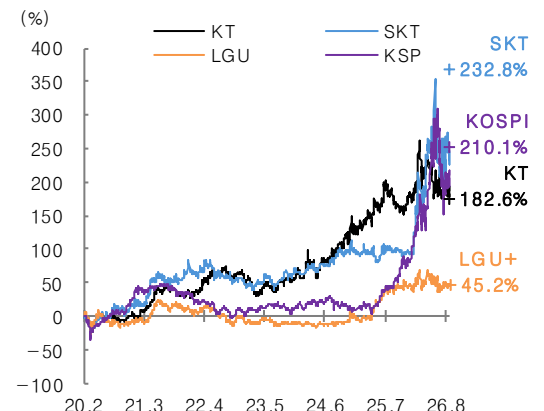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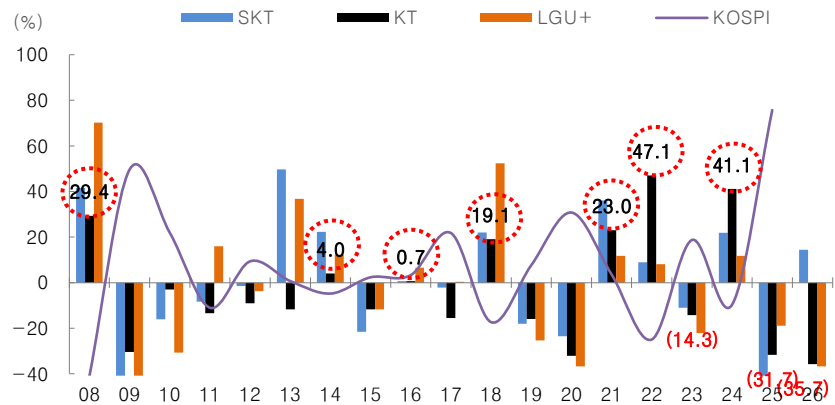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9.9%(+3.6%), KT +0.2%(−38.9%), LGU+1.2%(−38.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69.9	0.2	1.2	64.0	3.6	(38.9)	(38.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중국 이동사 피지컬AI, AIDC 지원책 초안, SKS AI 투자, SKB 노조 우려, KT 피지컬 AI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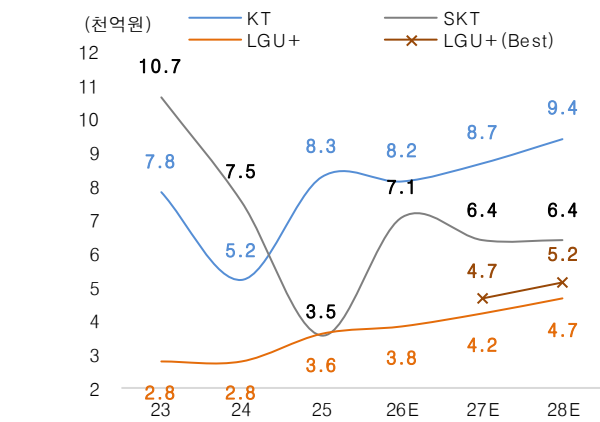
산업	중국 이동사 피지컬AI	1. 중국 이동통신 3사가 AIDC를 넘어 피지컬 AI 학습용 로봇 훈련장과 데이터 사업으로 투자 영역 확대. 통신·클라우드·연산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가공부터 모델 학습·평가까지 제공하는 신규 수익원 확보 전략 2. 차이나모바일은 항저우에 1200㎡ 규모 훈련장을 구축해 6개 업체 로봇을 대상으로 실생활·산업 작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 마련. 현재 100여개 분야에서 1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제·분류·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까지 지원 3. 차이나텔레콤은 로봇 학습 데이터 기업 미핑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5G와 클라우드를 결합해 데이터 확보 사업 추진. 미핑은 주거·사무실·공장·물류창고 등에서 사람의 작업 동작을 기록해 지난달 기준 100만 시간 이상의 데이터 축적 4. 차이나유니콤은 7개 로봇 기업이 참여하는 훈련 시설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 훈련과 실제 로봇 성능 검증까지 지원. 산업 현장과 매장 등에 필요한 100여가지 동작을 학습시키면서 현재까지 약 80TB 규모의 학습 데이터 확보 5. 피지컬 AI는 실제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사물을 조작하는 행동 데이터가 필요해 생성형 AI보다 데이터 확보 과정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구조. 중국의 실제 로봇 데이터는 약 50만 시간으로 범용 모델에 필요한 약 1,000만시간 대비 부족한 수준 6. 통신사에는 로봇 훈련장이 네트워크 사업자를 넘어 피지컬 AI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로 부상. 국내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실증 공간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데이터 트레이닝센터 구축 추진
		■ 통신인 AI 산업에서 직접 관련되는 영역은 인프라 분야의 AIDC와 서비스 차원의 Agentic AI 및 Physical AI ■ 아직 한국 통신사들은 AIDC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Agentic AI와 Physical AI 영역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부각되는 글로벌 사례들의 등장이 중요
산업	AIDC 지원책 초안	1. 정부가 AIDC 투자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비수도권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마련. 과기정통부는 최대 100MW까지 면제를 검토하며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학계 의견 수렴 추진 2. AIDC 인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AI 장비전력을 사용하거나 AI 장비전력 300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방식 검토. 대규모 시설은 비중 요건 없이 절대 전력량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에 GPU·NPU를 제공하는 개방형 시설도 지원 대상 포함 논의 3. 현행 제도는 대상 지역에서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계통영향평가를 요구하지만 특별법은 비수도권 AIDC에 면제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는 최대 100MW까지 면제를 제안한 반면 전력계통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해 50MW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 제시 4. 면제 확대의 핵심 효과는 전기요금 절감보다 사업 계획부터 실제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타임 투 파워'와 사업 불확실성 축소. 평가가 면제되더라도 변전소·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하면 전력망 보강이 필요해 실제 전력 공급까지 자동 보장되는 구조는 아닌 상황 5.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는 2024년 약 460TWh에서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AI 가속서버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 예상.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기술검토 522건·3만3592MW 가운데 공급 가능 판정은 10건·1010MW에 그친 상태 6. 정부는 국내 AIDC 구축 목표를 18.4GW로 제시했으며 주요 통신·플랫폼 사업자도 대규모 투자 추진. 업계는 계통영향평가 완화와 함께 전력·냉각설비

세액공제, 안정적 전력 공급, 개방형 AIDC 지원까지 병행돼야 실제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

긍정적	- AIDC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아직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SK스퀘어	- SK스퀘어가 올해 신설한 AI 혁신 조직을 중심으로 투자 업무와 포트폴리오 사업모델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AI 네이티브' 투자회사 전환 가속. 구성원이 자유롭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도록 다양한 AI 모델과 유연한 사내 보안 환경 제공 - 약 80명의 구성원이 1인 1 AI 에이전트 체계 아래 90여개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투자 현업에 적용하는 단계. 시장 분석·투자기업 발굴·보고서 작성 등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고 사람은 고난도 투자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업무 구조
SKS AI 투자	- 사내 보고서와 메일 등을 AI가 자동 축적하는 LLM 위키 기반 지식 데이터 허브 '키위'도 구축해 조직의 공동 지식자산 관리 강화. 기본 지식 공유뿐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개선 아이디어까지 제공하는 내부 AI 인프라 - SK스퀘어는 자체 업무 혁신을 넘어 SK플래닛·11번가·티맵모빌리티 등 포트폴리오 회사의 AX까지 주도하며 기업가치 개선 추진. '10x TF'를 통해 소수 개발자가 AI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회사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방식 11번가에서는 반복적인 데이터 관리 업무 자동화를 통해 운영센터 조직 비용을 약 50% 절감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 개선 효과 확보. 하반기에는 검증된 AX 방식을 더 큰 규모로 확대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사업 혁신을 가속할 계획 - 향후 OK캐쉬백·11번가 상품 카탈로그·티맵 POI 등 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 AI 집과 인프라 투자에서 애플리케이션·서비스 혁신으로 범위를 넓혀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
긍정적	- SK스퀘어는 SK 그룹의 ICT 관련한 투자 전문 회사. 반도체 밸류 체인이 최우선 순위이지만, ICT 산업에서 AI 에이전트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 - AI 산업은 인프라인 AIDC를 SKT가 주도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SKT와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판단
SKT	- SKB 노조가 데이터센터 사업의 SK호라이즌 분사를 두고 존속 법인의 성장 채원과 구성원 보호대책을 요구하며 우려 제기. AIDC 확장을 위한 외부자본 유치와 별개로 SKB에 직접 유입되는 자금이 공개된 거래구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 - SK호라이즌에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건설 중인 AIDC·해저케이블 사업이 편입되며 총 거래 규모는 3.1조원 수준. SKT는 구주 매각으로 1.9조원을 확보하고 SK호라이즌은 신주 발행을 통해 1.2조원의 신규 자금 조달
SKB 노조 우려	- 투자 완료 후 SK호라이즌 지분은 SKT 51%, KKR 29%, IMM 20%로 구성돼 SKT가 최대주주와 경영권을 유지하는 구조. 외부 재무적투자자 자본을 활용하면서 대규모 AIDC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 패턴 - 노조는 구주 매각대금이 SKT에, 신주 발행 대금이 SK호라이즌에 각각 귀속돼 존속 SKB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재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 유선 사업 경쟁력 강화와 B2B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투자 규모·재원 조달방안·실행계획 공개 요구 - 구성원 처우도 주요 쟁점으로 SK호라이즌 이동 인력에는 고용안정과 기존 연봉·복지후생·근로조건 승계에 더해 임금 인상과 격려금 요구. SKB 잔류 인력에도 성장동력 분리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상책 마련 요구 - 노조는 DC 사업 분리에 상응하는 성장 채원과 분사 이후 구체적인 성장전략, 이동·잔류 인력 보호책을 분사 동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 회사가 채원과 투자계획 및 실질적 보상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분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
중립적	성장사업인 DC 부분을 분할하면서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긍정적. SKB 존속 법인에서 영위하는 유선 사업의 경우 성장성은 제한적이지만, 레거시 사업으로서 캐쉬 카우 역할은 충실히 실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선 사업에 대한 향후 전략이 같이 제시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KT	- KT가 HD현대상호 조선소에서 5G와 AI 연산 인프라를 결합해 용접 로봇을 자동 제어하는 피지컬 AI 기술 실증 추진. 로봇 영상·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통신과 연산 자원까지 자동 배분하는 산업용 AI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이번 실증은 과기정통부와 NIA가 추진하는 고성능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KT·삼성전자·HD현대상호 등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G SA·네트워크 슬라이싱·GPU 연산·AI-RAN·자율형 네트워크를 하나의 인프라로 결합
KT 피지컬 AI 실증	- 첫 실증 대상인 AI 용접 로봇은 사람이 로봇을 옮기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기존 반자동 작업을 AI 기반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 로봇이 촬영한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달해 실시간 분석한 뒤 결과를 토대로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구조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해 용접 로봇 전용 통신 자원을 다른 서비스와 분리하고 조선소 데이터 트래픽 증가 상황에서도 일정한 통신 품질 확보. 즉각적인 연산은 로봇·현장 서버에서, 대규모 분석과 AI 학습은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하는 분산형 연산 구조 - AI-RAN은 로봇 작업 상황에 맞춰 네트워크 용량과 GPU 연산량을 함께 배분해 통신망과 컴퓨팅 자원을 동시 최적화하는 역할. 자율형 네트워크도 트래픽과 품질을 실시간 분석해 혼잡이나 품질 저하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체계 - KT는 통신망을 단순 데이터 전달 수단에서 피지컬 AI의 인지·판단·행동을 실시간 지원하는 산업 인프라로 확장하는 전략. 조선소 실증을 통해 AI-RAN과 연산 인프라의 융합 역량을 검증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겨냥한 사업 기반
긍정적	- 통신이 AI 산업에서 직접 관련되는 영역은 인프라 분야의 AIDC와 서비스 차원의 Agentic AI 및 Physical AI - 아직 한국 통신사들은 AIDC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다양한 실증 사례들을 발굴해내면서 Physical AI와 Agentic AI의 구체적인 BM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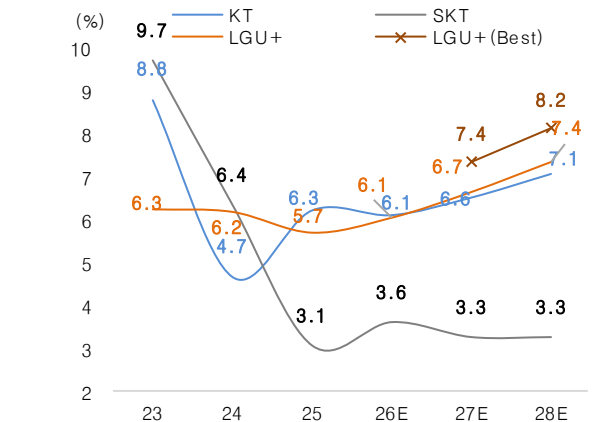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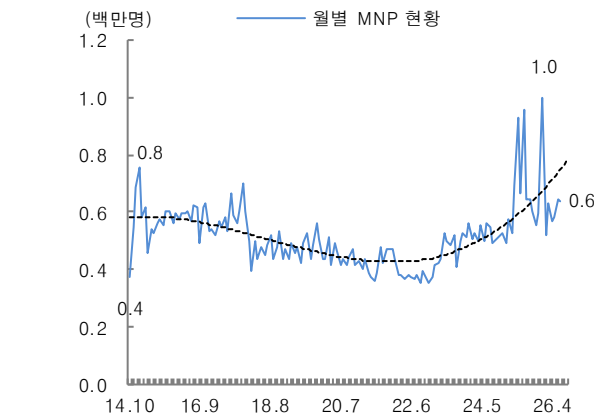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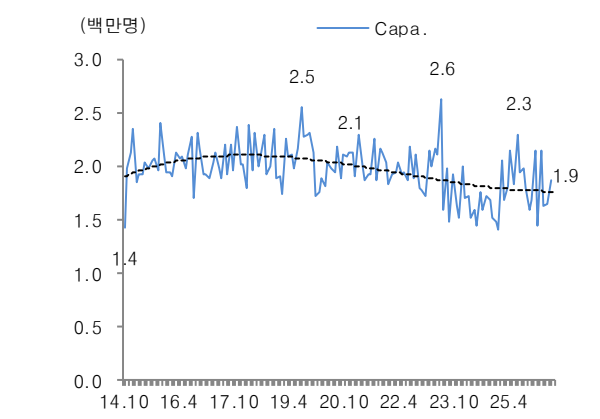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7월) 64만명, -0.7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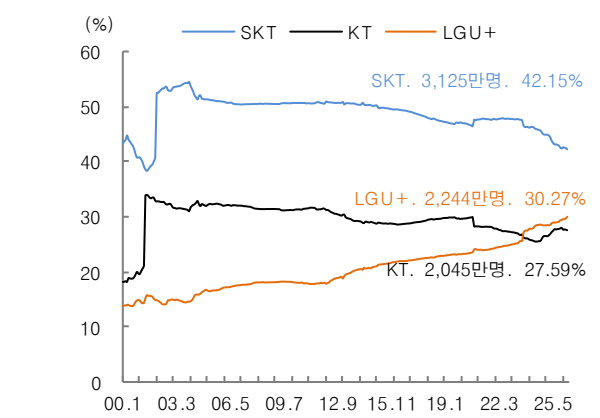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87만명(26.6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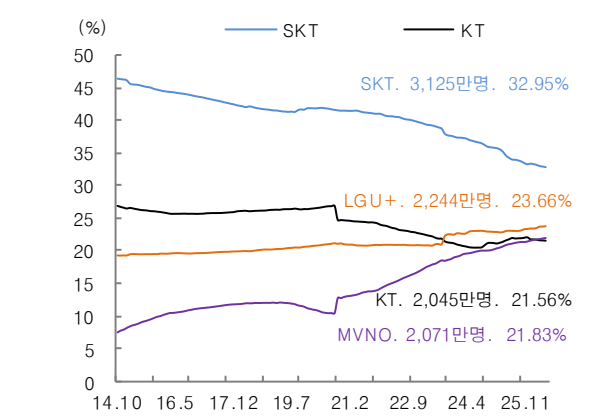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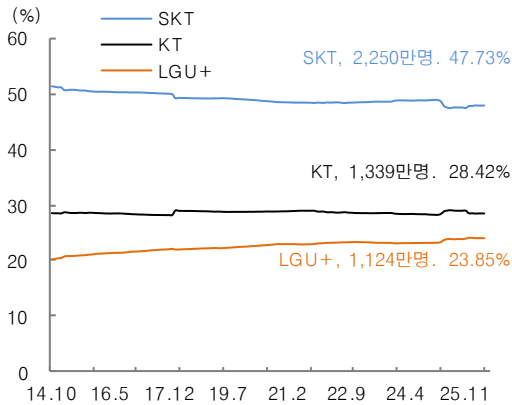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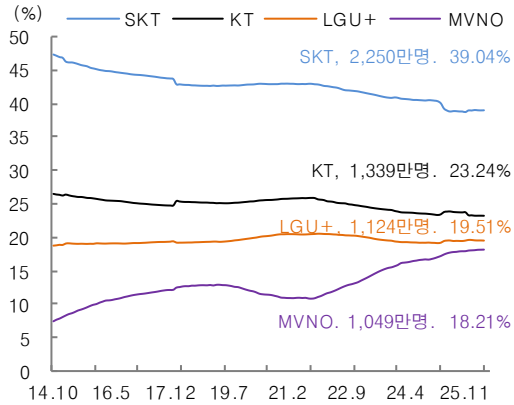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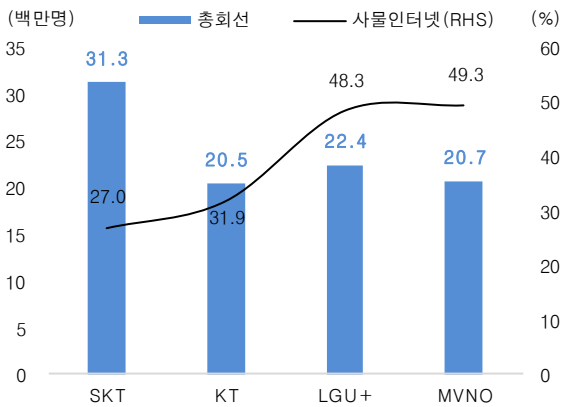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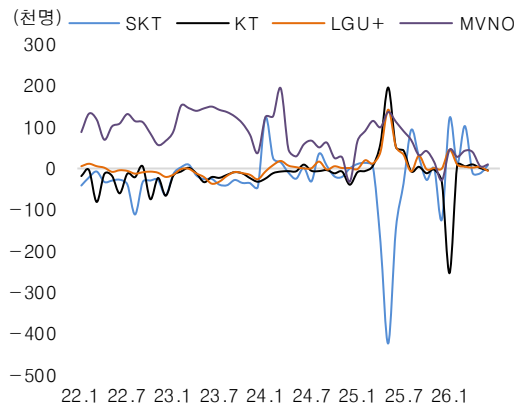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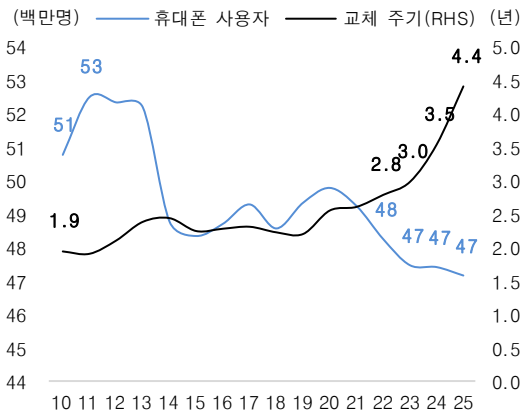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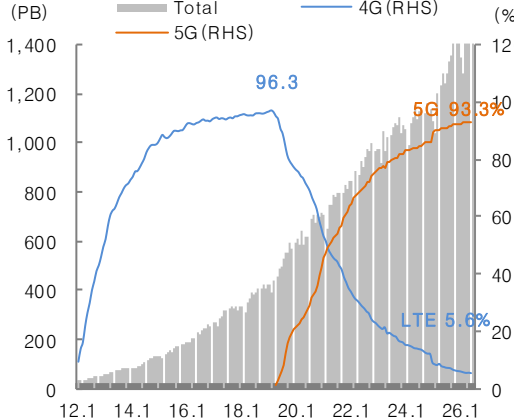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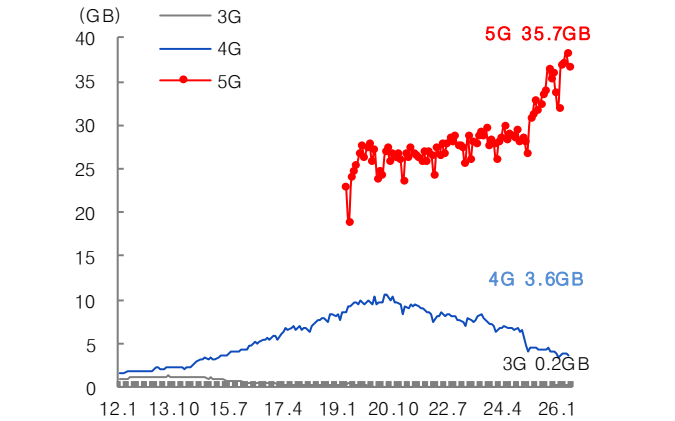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3.3%(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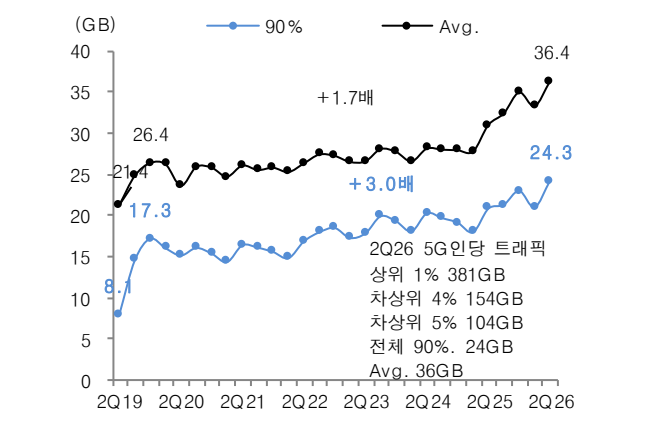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7GB(26.6월), -1.5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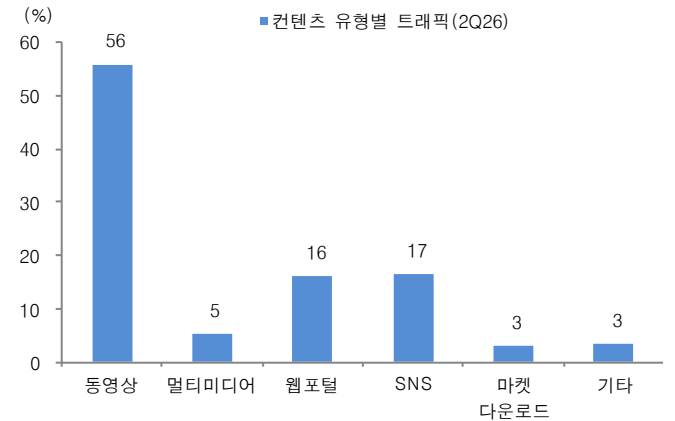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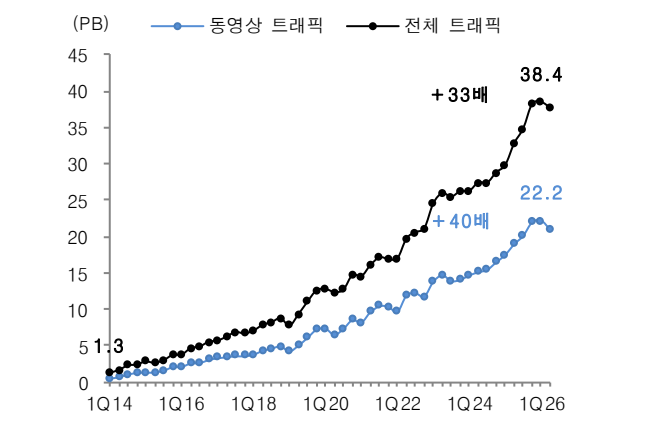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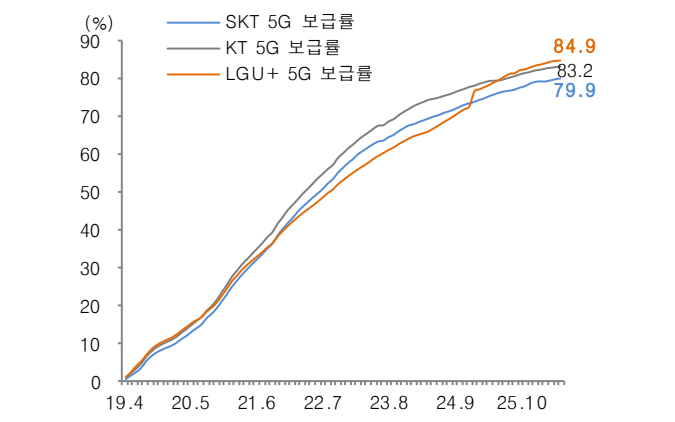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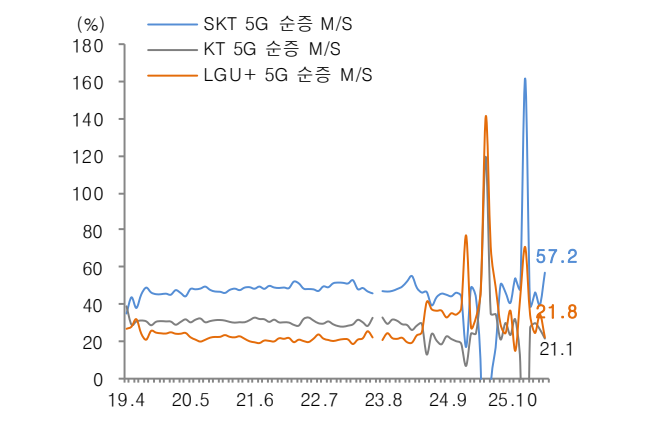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2.0%(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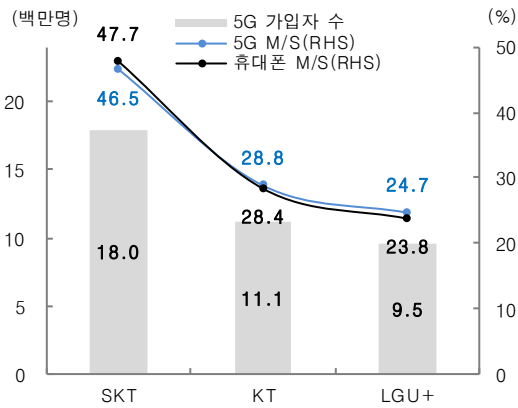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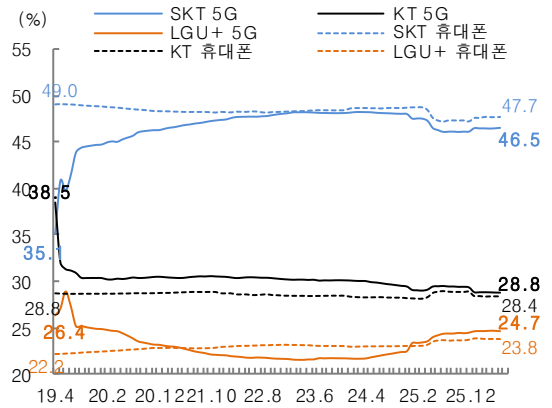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